

전환의 순간, 넓은 세상을 향한 디딤돌

완벽이 필요없는 순간

박진송 (미디어학 2021)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떠난 박진송 씨는 프랑스에서 강의를 들으며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사진=박진송 제공)

‘내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할 것.’ 프랑스 파리의 경영대학 ESSCA에서 마케팅 강의를 듣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다. 강의에서는 단순히 마케팅과 경영 지식만을 배우지 않는다. 교수님께서 강의 내내 “질문을 주저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한국에서도 종종 들었지만 프랑스 대학 강의실에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 프랑스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짧고도 긴 시간 속에서 크게 변화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무언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주문처럼 강의 내내 들려오는 교수님의 말씀은 묘기를 부리듯 내 안의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다.

설렘과 두려움 속 지난 달 6일, ESSCA의 정문을 넘어섰다. 강의실에 처음 들어가며 ‘토론과 논쟁이 난무하는 강의실에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도 똑같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수업에 적당히,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학생과 비슷하면서 또 달랐다. 외국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표현하며 질문이 있으면 강의 도중 언제라도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 강의는 교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학생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강의의 본질을 잘 알고 있음이 느껴졌다.

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런 수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태도다. 이때의 태도는 강의 중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끊고 질문할 용기, 정답과 관계없이 의견을 전달하는 자신감이다. 이것이 거창한 것이라도 되는 양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외국 학생은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처음엔 이런 수업 방식이 부담스러웠다. 영어 때문이었다. 초반에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말을 아꼈는데 갑자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엉터리 영어로 몇 번 발표하고 나니 그 생각이 사라졌다. 영어를 못해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교환학생 한 달 차, 아직 다른 학생처럼 강의 도중 활발하게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나 이제는 강의가 부담스럽지 않다. 말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털어내니 마음이 편해졌다. 프랑스에서 강의를 들으며 배운 것이다. 모든 것을 완벽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것. 학교에도 한국 학생이 꽤 많은데 외국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은 틀리는 것에 두려움이 크다. 우리는 완벽을 쫓는다. 때로는 완벽만을 쫓기도 한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완벽을 위해 완벽하지 않은 순간도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완벽이 필요 없는 순간이다. 일단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보자.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더 명료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완벽을 위해 완벽하지 않은 순간도 필요하다.

우물 밖의 개구리가 되기

정다진 (한국어학 2020)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난 정다진(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씨는 “우물 속 개구리가 처음 우물 밖으로 나와 세상을 경험하듯, 교환학생은 대학생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말한다. (사진=정다진 제공)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이 한 문장을 계기로 교환학생을 신청했다. 한국어학과에서 외국인들에게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법을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구는 늘 나와 함께해 왔다. 많은 전공 수업을 들으며 모어가 아닌 제2언어를 교수하기 위해 단순히 언어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이다. 또한 곧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진로를 더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 한 학기라는 시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그렇기에 지금 있는 Brigham Young University(BYU)는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직접 본교의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Teaching Assistant(TA)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이미 작년에 전공연수로 다녀와 본 BYU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망설임 없이 교환학생에 지원했다.

그렇게 시작한 교환학생 생활은 지금도 매우 만족스럽다. 전공과 관련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TA 활동을 통해 대학 수업에서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모든 수업을 직접 구성하고 자료를 제작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또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 혼자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도 있어서 좋았다.

타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생활하며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럽다. 여행이 아닌 사유로 타국에 꽤 긴 시간 머무르는 것은 쉽게 경험할 수 없다.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여행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달랐다. 이곳에서 대학 문화부터 놀이, 축제, 대화 문화까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BYU는 교회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라 문화 차이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사귀어 외국인 친구와 함께 스모어 파티, 등산 등 여러 활동을 즐기며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중이다. 또한 BYU는 교환학생을 위해 여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에 다녀왔는데 디즈니 월드, 나사 등 여러 명소를 탐방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교환학생은 심층적인 전공 공부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물 속 개구리가 처음 우물 밖으로 나와 세상을 경험하듯, 교환학생은 대학생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한국어학과에서 외국인들에게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법을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구는 늘 나와 함께해 왔다.